

네덜란드 2006년도 농업정책 개요

최근 네덜란드 농업·자연·식품품질부(Ministry of Agriculture, Nature and Food Quality)는 2006년도 정책 예산을 발표했다. 이 예산 계획을 통해 네덜란드의 농업 정책이 특히 어떤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이번에 발표된 정책 예산 계획에서 파악할 수 있는 네덜란드 농업·자연·식품품질부의 2006년도 주요 정책의 요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토양 양분과 관련된 새로운 정책이 2006년 1월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축분 비료 처리와 수송에 관한 시범사업이 준비되고 있다.

(2) 연안어업 부문은 조업을 중단해야 하는 중대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연안어업에 활용되는 선박의 수를 20% 감축하기 위해 3,800만 €의 예산을 확보한 상태이다.

(3) 2006년 1월 1일부터 생산과 연계되지 않은 소득보전 보조금 정책이 시행될 계획이다. 유럽연합의 보조금은 이제 재배하는 작물이나 사육하는 가축의 ‘양’을 기준으로 지불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유럽연합 보조금은 환경, 자연, 동물후생 등과 관련된 법규를 교차준수하는 경우에만 지급될 것이다.

(4) ‘지식과 혁신’ 부문에 대해 8억 6,000만 €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다.

(5) 유기농산물 판매에 있어 가격은 어느 정도의 조절 능력(controlling force)을 갖고 있는지를 밝히기 위한 연구가 시작될 것이다.

(6) 살아있는 가축의 수송에 관한 EU의 동물 후생 관련 규정이 2006년 1월 1일부로 발효될 예정이다.

(7) 식품과 사료에 관한 EU의 위생 관련 규정이 2006년 초에 발효될 예정이다. 그 이후로는 식품 및 사료 생산자들에 관한 네덜란드 정부의 입법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8) 2007~13년 기간 동안에 수행될 새로운 농촌개발정책 프로그램의 내용이 2006년 초에 결정될 것이다.

(9) ‘국가 생태 네트워크(National Ecological Network)’은 생태계 보전을 위해 3,800ha의 토지를 매입할 것이다.

(10) Natura 2000 계획에 속하는 모든 지역이 공식적으로 지정될 것이다. 지정될 각 지역들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 계획을 수립하게 될 것이다.

(11) 위기에 놓여 있는 동식물 중 보호를 위해 ‘서식지 접근방법(habitat approach)’이 도입될 것이다. 이는 하나의 동식물 중 보호를 위해 고유한 보존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왔던 기존의 접근방법을 대체하는 것이다.

새로운 토양양분 관리 정책, 경관에 관한 도 단위 지방정부의 권한 강화, 식물 보호에 관한 책임의 명확한 분담, 국가 생태 네트워크 실현을 위한 노력 배가, 어업부문 활력 제고, 행정적 부담 감소 등이 네덜란드 농업·자연·식품품질부 장관 Cees Veerman이 제기하고 있는 2006년도의 주요 정책 의제들이다. 이것들을 관통하고 있는 주제는 생태, 경제, 사회의 세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지속가능한 개발’이다. 생태적 차원이란 환경, 자연,

생물종다양성에 대한 결과를 고려하는 정책을 수행함을 의미한다. 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한 정책은 수익성이 있으며 수요로부터 추동되는 생산을 촉진하는 것을 뜻한다. 사회적 지속가능성은 모든 관련 당사자들 사이의 개방적이고 상호 존중하는 관계에 기초한 정책 실행을 의미한다. 이는 또한 정책이 동물 후생 등과 같은 중요한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이러한 세 가지 측면은 서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표 1 ‘지속가능한 발전’ 관련 예산 개요

주요 정책	(단위: 1,000 €)
지속가능한 경영체(기업 환경 개선, 사회가 원하는 생산 조건 확보, 지속가능한 생산 방법 및 생산체계 촉진)	292,207
영농 공간 관련 정책	51,675
국가 생태 네트워크 발전을 위한 토지 획득 및 개발, 국가 생태 네트워크 외부 지역의 자연 관리, 국제적인 수준에서의 생물종다양성 보호	433,727
경관 및 휴양	141,635
식품 품질 및 가축 위생	105,871
지식 및 혁신	860,593
사질토 지역 복원	51,241
계	2,135,254

자료: 네덜란드, the Ministry of Agriculture, Nature and Food Quality

<표 1>에서 보는 2006년도 예산 규모는 2005년과 비교할 때 1억 5,900만 €가 증액된 것이다. 이러한 증액은 대부분 2003년도에 있었던 연립 내각의 합의사항 이행에 따른 것이다. 2006년도에는 국가 생태 네트워크의 실현에 약 1억 5,500만 €의 예산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여기에는 농업인들이 수행하는 자연관리 활동과 관련된 예산도 포함된다. 네덜란드의 ‘자연보호법’ 개정안에 따라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허가 또는 면제 등의 문제들을 다루는데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 그리고 ‘식물상 및 동물상(Flora and Fauna)’ 법에 따른 보상금 지급을 위해서도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1,900만 €).

네덜란드 농업·자연·식품품질부는 타성에 의한 형식주의를 줄이고 혁신적인 해결책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민간 경영체들을 지원하기로 했다. 농업 부문과 어업 부문의 활력 제고를 위해,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그리고 가능한 정부 지원 없이 경영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이 이러한 정책의 목표이다. 이 정책들에 있어 책임은 민간 부문의 경영체들에게 있으며, 네덜란드 정부는 촉진자로서의 역할만을 수행한다.

현재 네덜란드의 농업 부문은 그 장래가 유망하다. 농업 부문은 식품 공급자로서 뿐만 아니라 매력있는 경관과 꽃 공급자로서도 사회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농업 부문은 다음과 같은 이슈들에 관해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보다 강한 시장지향성
- 물리적 환경의 질
- 농산물 및 농산물 생산 과정에 관한 개방적이고 투명한 대화

네덜란드 정부는 농업 부문에 대한 행정 비용을 25% 정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07년에는 약 30%까지 감축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투자와 ‘일반 식품법 (General Food Law)’의 개정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2006년 1월 1일부터 소득 지지와 관련하여 중대한 변화가 도입될 것이다. 유럽연합 공동농업정책 개혁에 따라, 소득 지불은 더 이상 작물이나 가축 수와 연계되지 않으며 환경이나 동물 후생과 관련된 특정한 요구사항을 준수하는 경우에만 이루어질 것이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시장의 압력으로부터 농가들을 보호하던 정부의 노력이 줄어들게 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농업인들이 사회의 요구에 따라 농업경영활동을 적응시키도록 지원하는 새로운 수단들이 도입될 것이다.

한편, 2006년 1월부터 영양성분과 관련된 새로운 정책이 시행된다. 이

정책은 농업과 환경의 관계를 더욱 좋은 상태로 만들기 위한 진일보한 시도이다. 축분 비료 가공과 수송에 관한 시범사업이 진행될 것이다. 새로운 영양성분 관련 정책의 2006년도 예산은 670만 €이다.

동물 후생 등 사회가 중요한 가치를 두고 있는 것들을 고려한 영농체계를 운용할 때에만 농업은 지속가능해질 수 있다. 2004년 후반기에 EU의 동물 후생 관련 규정이 합의된 바 있는데, 그것은 특히 살아있는 가축의 운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규정은 2006년부터 발효될 것이다. 네덜란드 정부는 육계와 새끼돼지의 거세와 관련하여 유럽연합 규정이 요구하는 수준에 맞추기 위한 작업을 시작할 것이다.

농업을 통해 생산되는 원료(섬유, 기름, 단백질)가 플라스틱, 페인트, 연료 등과 같은 상품 생산에 활용되기 시작했다. 네덜란드 정부는 ‘생물 기반 경제(bio-based economy)’의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한 전략적 연구를 시작했다. 재활용 가능한 상품들을 생산하고 활용하는 것이 기후문제 해결에 기여가 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에너지 소비와 공해물질 방출을 감소하고, 경제가 화석연료에 대해 의존하는 비중을 줄일 수 있게 될 것이다. 2006년부터 네덜란드 정부는 바이오 디젤 도입을 촉진할 계획이다.

유기농업 부문은 지속가능한 발전과 중요한 관계가 있다. 유기농 생산을 지원하고 유기농산물의 시장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수요 촉진 정책을 시행할 것이다. ‘유기농산물 시장 개발을 위한 협약(The Covenant on market development for organic production)’이 2005년도에 체결된 바 있으며 2007년도까지 준수될 것이다. 이 협약에는 슈퍼마켓, 식품 제조업체, 은행,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합의된 목표와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이 협약은 유기농산물과 판매액을 증가시키고, 유기농산물과 관행 농산물의 가격 차이를 메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가격이 유기농산물 판매에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히기 위한 연구가 시작될 것이다. 이 연구의 결과에 따라서 네덜란드 정부는 정책을 조정하게 될 것이

다. 유기농 축진을 위한 2006년도 예산은 1,210만 €이다.

2006년에 작물 보호와 관련된 새로운 국가 법규가 도입될 것이다. 작물 보호에 관한 EU 규정을 네덜란드 국내법에 반영시킴으로써 법률적 틀이 정비될 예정이다. 2006년은 또한 ‘지속가능한 작물 보호 및 작물 보호 협정(Sustainable Crop Protection and the Crop Protection Agreement)’에 따른 정책 중간 평가가 이루어지는 해이다. 네덜란드 정부는 이 협정이 지속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작물보호 분야 2006년도 예산 규모는 390만 €이다. 식물 보건 분야 정책에서 그 책임이 정부로부터 민간 부문으로 이동하고 있다. 민간 부문 검사 기구(inspection body)가 정부의 감독과 통제 하에 채소 작물을 검사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하고 있는 중이다. 이 새로운 체계는 Plant Keur 프로젝트를 통해 마련될 것이다. 검사는 상품 품질에 관해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식물 질병까지도 추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상 유례없는 쿼터 감소로 인해 어업 부문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어업 부문의 변화가 불가피하다. 연안어업은 심각한 구조 조정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연안어업 선박을 20% 감축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어업이 보다 생태적이며 연료를 절약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되도록 지원할 가능성을 찾는 연구가 진행 중이다.

혁신은 지속가능한 발전 배후에 있는 원동력이다. 혁신은 무엇보다도 생산자들과 산업 부문 종사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정부의 역할은 혁신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혁신을 매개하며, 조율하고, 필요한 경우 산업 부문이 혁신적인 움직임에 참여하도록 초대하는 데 있다. 2006년도 예산에는 지식과 혁신 부문에 8억 6,000만 €의 예산이 배정되어 있다.

자료: 네덜란드, Ministry of Agriculture, Nature and Food Quality
(김정섭 jskkjs@empal.com 010-7339-2546 서울대 농업생명과학연구원)